

이 력 서



이름	박주아	영문	Park Jua	한문	姓珠婁
생년월일	2001.12.07				
휴대폰	010-6259-3309	홈페이지	https://parkjua.github.io/Portfolio/		
E - mail	wndk3309@gmail.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학력사항

재학기간	학교명 및 전공	소재지
2023.02	계원예술대학교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졸업 예정	의왕
2022.03	계원예술대학교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프로그래밍 세부전공 선택	의왕
2020.03	계원예술대학교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입학	의왕
2020.02	송신여자고등학교 졸업	성남

주요활동

기간	활동내용	활동구분	기관
2022.03 ~ 2022.06	2022 커뮤니케이션디자인국제 공모전 참가	공모전	한국커뮤니케이션디자인협회

수상내역

기간	상세 내용	기관
2019.07	제 20회 전국학생미술실기대회 우수상	수원대학교총장

자격증

취득일자	자격증/면허증	등급	발급처
2021.09	운전면허증	2종보통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능력사항

개발기술	HTML	툴 활용 능력	Photoshop
	CSS		Illustrator
	JavaScript		Figma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2 년 12 월 23 일

성 명 : 박주아 (인)

새로운 배움을 즐길 줄 아는 개발자

확고한 진로를 정하지 못해 방황하던 고교 시절, 평소 관심이 많던 미술 전공에 대해 찾아보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입시 미술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늦게 시작하는 미술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자신감이 없었지만, 끝까지 남아 우수작품들을 연구한 결과 계원예술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끝까지 도전하는 자세와 원하는 바를 얻기까지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경험을 발판 삼아 프로젝트 작업을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문제 해결 능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입학 후, UI/UX 디자인을 하러 들어온 과였으나 빈 화면에 코드를 통해 화면을 채워나갈 수 있는 프로그래밍의 매력을 느껴 세부 전공 선택 전 디자인과 프로그래밍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부전공 선택을 고민하던 중 백엔드를 전공하는 지인의 HTML 구조를 짜주고 CSS 부분을 도와주던 과정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했을 때 뿌듯함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을 기획하고, 디자인한 대로 웹 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래밍 전공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또한, 저에게 불편하고 개선 필요를 느끼는 웹을 직접 개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로워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혼자보다 여럿이 좋은 개발자

퍼블리셔의 역량 중 중요한 한 가지는 협업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학년 프로그래밍을 전공하면서 2022 국제 커뮤니케이션 공모전 출품과 졸업작품을 위해 기획자, 디자이너와 함께 팀을 꾸려 협업한 경험이 있습니다.

세부 전공이 다른 팀원들 사이에서 프로그래밍 역량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래머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문 서적들을 다시 읽어보고, 밤을 새워가며 개발에 집중하여 기한 내에 무사히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통해 함께 난관들을 극복하며 성취감과 협업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학년 때 배운 기획과 디자인 경험을 살려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서서히 나아가는 개발자

개발자의 역량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집념이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집념은 미대 입시에 도전하고, ‘퍼블리셔’라는 꿈을 가지기까지 포기하고 싶던 순간들을 붙잡아주었습니다.

집념을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하나 얻어가는

즐거움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저의 성장에는 집념이 함께 할 것입니다.

‘개발자는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로 문제해결 과정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개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항상 새로운 기술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개발자가 되겠습니다.